



서구민의 일상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공동체

2022. Vol.2

## 일일기록『日一記錄』

사진으로 보는 2022년 하반기 서구기록가 뉴스

[에세이] 기록가의 시선\_유현옥

[인터뷰] 신현문구사, 서충성 사장

[특집기사] 인천 서구의 공원을 소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서구기록가의 일일기록『日一記錄』  
하루에 한 개씩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서구의 일상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구기록가의 소식지입니다.(연2회 발간)

# Contents

- p.3 나에게 인천 서구를 기록하는 것은....
- p.4 사진으로 보는 2022년 하반기 서구기록가 뉴스
- p.6 [ 에세이 ] 기록가의 시선 \_ 유현옥
- p.7 [ 인터뷰 ] 서구기록가가 만난 사람 \_ 신현문구사, 서충성 사장
- p.8 [ 특집기사 ] 인천 서구의 공원을 소개한다

2022. Vol.2  
서구기록가 일일기록『日一記錄』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표지소개 〉  
소세어도로 가는길, 유현옥 촬영  
썰물로 드러난 길을 따라 소세어도로 걸어가면  
갯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쓰리엠타워 7층)
발 행 일 2022년 12월 5일	전 화 032-582-4341
발 행 인 정군섭	팩 스 0502-582-4742
편집주간 서덕현	이 메 일 inscc@naver.com
편집기획 임혜선, 유지인, 조혜린, 김혜정, 원서영	w e b www.inscc.kr
서구기록가 1기 김래인, 김옥선, 김지영, 유현옥, 조경희	

## 『일일기록』 2호 발간에 앞서...

서구기록가 1기는 2020년 10월, 인천서구문화원 서구기록사업을 통해서 처음 만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변화하는 서구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가 모집 공고를 보고...” 서구기록가에 지원한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총 51명의 예비기록가가 접수되었고 2022년 12월, 지금은 5명이 서구기록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취재, 정기답사, 도보조사, 동네 맵핑북 발간, 수업 등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저물 즈음 서구기록가 『日一記錄』 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갈 때마다 시간은 늘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끝엔 ‘아쉬움’의 감정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남은 2022년, 우리 아쉬워만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인천 서구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2023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서구기록가가 응원합니다.

## 나에게 인천 서구를 기록하는 것은...

김래인



인천 서구에 살아온 지 어언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다는 시절 동안 서구도 그 모습을 조금씩 바뀌어 갔고 나는 서구라는 삶의 터전에서 시간을 살아왔다. 그렇기에 나에게 있어 인천 서구를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은 기록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렇기에 내가 살아온 서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군가 살아갈 서구를 기록한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을 기쁨인 것만 같다. 내가 누군가에게 서구의 시간들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영



나에게 인천 서구는 제2의 고향이다. 딸아이의 직장을 따라 이릉도 생소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정착한지도 어느새 십 년이 넘었다. 서구로 이사하기까지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인천 서구에 정착해서 이제는 이곳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기도 싫다. 이제는 인천 서구가 내 고향보다 더 정(情)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구를 기록하는 것은 곧 내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김옥선



검단 신도시가 한창 건설 중인 인천 서구. 매일매일 변화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개발 이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린 지금, 산이며 논이며 정겹던 풍경은 모두 사라지고, 답답한 고층 아파트촌으로 변하여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잊혀진 지난날을 추억하기 위한 자료로 남기겠다는 마음에 미약하나마 나의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

유현옥



인천 서구는 중학 시절부터 나의 꿈과 청춘이 함께 자란 곳이다. 오랜 시간을 서구와 함께 하면서 지나쳤던 추억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이가 들고 보니 가끔 그 시절의 추억을 꺼내보게 된다. 길을 걷다가 문득 ‘예전엔 이곳이 이 모습은 아니었어’ 라든가 ‘여기엔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가물가물한 생각의 끝자락을 안타깝게 놓아버릴 때가 있다. 그런 추억의 그리움에 대한 아쉬움은 나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서구기록가, 어언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아쉬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서구의 구석구석을 기록하고 싶다. 그래서 과거의 꾀꿘했던 기억에 대한 아쉬움이 들려 할 때마다 기록의 장을 펼쳐며 추억에 잠기게 하고 싶다.

조경희



주변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시절, 가정을 꾸미며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이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이 이사 온 서구는 먼지가 풀풀~나는 예쁜 시골 동네였다. 10년이 훌쩍 넘어 지금은 잘~ 정리된 신도시가 되어 예쁘게 마련된 곳곳의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누군가가 내준 숙제가 아닌 지역의 변화를 기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구기록가의 임무를 완수해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 2022년 하반기 서구기록가 뉴스



하반기는 왜인지 시간이 더욱 빨리 가는 것 같다. 7월부터 11월까지 서구기록가 역량 강화 수업과 현장답사, 동네 맵핑북 제작을 진행했다. 서구기록가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계획한 체크리스트들이 있었을 텐데 『日一記錄』도, 맵핑북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답사에 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앉아 글을 쓰는 나의 모습도 조금은 익숙해져 간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여태껏 견고했던 코로나의 방어막이 풀리며, 우리 서구기록가들도 오랜 기간 돌아가며 격리의 기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모두 모여야 할 때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풍량이 지나간 것처럼 지금은 모두 웃으며 “얼마나 아팠느냐”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이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 시간을 부여잡고 싶지만, 사진을 보며 “아~ 그때 이랬었지” 하면서 서구기록가로서의 시간을 추억해 보고 싶다.

## 01 2022년 영상수업 진행

항상 그렇듯이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게 되고,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기억 속에서 잊힌다. 그래서 늘 영상 수업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에겐 많이 남았다. 서구기록가로서 활동하던 첫 해, 우리 활동의 시작은 기초적인 영상 만들기였다. 3년 차를 맞이해도 영상을 만드는 것은 늘 힘든 느낌인데, 올해는 하성주(프리랜서PD)선생님을 모시고 영상 제작의 팁(tip)을 배웠다. 특히, 하성주 선생님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을 보며 실전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텔레비전을 틀고, 선생님이 연출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촬영과 편집현장의 희로애락이 생각나 살짝 웃음이 난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를 잘 방어하면서 출석률 100%를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나, 서구기록가 중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많아 질문도 많고, 수업 열기도 뜨거웠다. 언제나 수업의 마지막은 환한 미소로 웃으며 사진을 찍는 일이다.

20220722~0826\_ 인천서구문화원 1강의실



## 02 영상 촬영 - 서구의 오래된 문구점

영상 수업을 받으며, 우리가 직접 주제를 정하고 촬영 구성안을 작성해 보고 촬영까지 진행해 보기로 했다. 어떤 주제를 정할지 고민하다가, 인천 서구의 오래된 문구점을 조사해 보자고 했다.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선정 기준을 마련했는데 첫째는 30년 이상 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일 것, 두 번째는 가능한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문구점을 운영했던 곳, 세 번째는 옛 모습을 가능한 지키고 있어야 함! 이 그것이었다. 서구기록가가 추려낸 14곳의 문구점 가운데, 신현동에 위치한 신현문구사로 정하고, 사장님과 연락을 통해 우리 촬영의 취지를 말씀드렸다. 1982년 신현초등학교 개교 이래 항상 한자리에서 문구사를 운영하신 서충성 사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시절 문구점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PD: 김래인/ 작가: 김지영/ 촬영구성안: 김옥선/ 인터뷰: 유현욱/ 촬영: 조경희

인터뷰 내용은 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811~0826\_ 신현문구사



우리 서구기록가는 작년 활동부터 1년에 2번씩 정기답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우리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민속아카이브), 서울기록관, 기록도시 청주 동네기록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수장고형 미술관), 강화 교동을 방문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구 유일의 사람이 사는 섬, 세어도로 답사를 떠났다. 인천 서구에 사는 사람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세어도! 세어도는 한나절이면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작고 아담한 섬이지만, 갯벌과 자연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현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세어도 곳곳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서구기록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답사를 떠나기 전, 세어도만의 인문지리환경에 대한 답사지를 작성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차례의 답사를 거치며 익숙해진 일들이다. 물에는 흔한 맛있는 식당, 카페가 세어도에는 없다. 대신 직접 준비한 도시락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세어도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뜻깊은 답사였다.

## 03 2022년 하반기 현장 답사 - 세어도

20221007\_ 세어도에 부는 뉴딜의 바람



▲ 정서진호



▲ 세어도 입구



▲ 소세어도 가는 길



▲ 소나무군락지

세어도는 현재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다. 우리는 답사와 취재를 위해 미리 서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선인 정서진호를 타고 10여 분의 물길을 달려 세어도에 도착했다. 입구에서부터 곳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뭔가 이 섬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섬의 산책로를 따라가는 길에는 갯벌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세어도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 04 동네 맵핑북 『2022년 가을, 인천 서구의 섬- 세어도』 발간 &amp; 슬라이드쇼



▲ 20211217\_ 슬라이드쇼



▲ 작년 슬라이드쇼 1등 작품 (촬영\_김래인)



▲ 20211210\_ 동네맵핑북 1권



▲ 20221120\_ 동네맵핑북 2권

우리 활동의 마무리는 동네맵핑북, 원래는 ‘커뮤니티 맵핑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동네 맵핑북’이라는 조금 정겨운 느낌으로 이 책의 이름을 부른다. 원래 커뮤니티 맵핑은 모임별로 혹은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 지도에 동네에 정보를 표시하여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겨울철 봉어빵집, ‘봉세권’을 지도에 표시하기도 하고, 공공화장실을 표시해 놓기도 한다. 우리 서구기록가는 변화하는 서구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사진을 찍고, 지도에 표시한 후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기록한다. 작년에는 검단, 올해는 세어도로 주제로 정했다. 검단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있어 ‘현재를 기록해 놓자’는 뜻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서구 유일의 유인도인 세어도로 주제로 잡았는데, 우리가 세어도에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세어도 역시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세어도에 방문할 서구민 뿐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맵핑북이 양질의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우리가 찍은 세어도의 사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동네맵핑북은 앞으로 서구기록가가 매년 발행할 예정이며, 매년 새로운 서구의 장소에서 기록가들의 사진과 글을 남길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이다.

해마다, 서구기록가의 마지막 활동은 (슬라이드쇼)이다. ‘슬라이드(slides)’는 사진을 의미한다. 우리 기록가들은 매년 답사, 취재,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진 찍을 일들이 참 많다. <슬라이드쇼>는 매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인물, 풍경, 유머 등 각 부문을 정해 기록가가 제출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투표로 ‘올해의 사진’을 함께 선정하는 활동이다. 올해도 12월 16일에 진행될 슬라이드쇼는 1년간의 활동을 추억하며 지난 활동을 서로를 격려하는 파스한 시간이 될 것이다.



## 기록가의 시선

# 혼자여도 좋은 늦가을의 산행

유현옥(서구기록가 1기)

나는 체력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라고 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산악동아리가 있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시작한 사내 동아리였는데 이젠 다들 퇴직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 가깝고 낮은 산행만 하게 된다.

하지만 그건 산을 잘 타는 사람들 생각인 거고 나에게 두어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산행이 여전히 벅차다.

그래서 산행이 있기 바로 전(前)주에는 예행연습 겸

우리집과 가까운 토담산에 몸도 풀 겸 오르게 된다.

토담산은 진달래로 유명한 가현산 자락에 있어서 봄이면 가현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나도 또한 봄의 진달래를 좋아하여 이 산에 많이 오르게 된다.

그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 사람들 발길에 떠밀린 나는 산행객들과 하나가 된다.

항시 오르던 토담산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건 아마도 서구기록가를 시작할 무렵이었을 거다.

매일 눈으로만 보던 산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글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조차도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그것은 산에 오르는 나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나는 오늘도 서구의 늦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토담산에 오른다.

늦가을 토담산엔 아직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토담산에 오르다 체력이 남는다면 가현산까지 갈테고,

처음부터 산에 오르기를 포기한다면 산 초입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정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어도 좋을 것이다. 혼자 갔으면 어떤가?

그 정자에 누군가는 앉아 있을 터이니 오늘 하루 말 벗을 삼아도 좋으리라.



토담산을 걸다가 만난 만추(晩秋)

늦가을, 토담산에서 볼 수 있는 코스모스, 단풍나무들은 산행길에 좋은 친구들이다. 작지만 아름다운 토담산은 함께 걸어도 좋지만, 혼자 걸어도 좋다. 나무와 꽃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흠에 발을 내딛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이 좋다. 마음의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가을의 산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좋다.

## [ 인터뷰 ]

서구기록가가 만난 사람

# 서구의 오래된 문구점, 신현문구사 서충성 사장



1980~90년대의 신현초등학교 앞에는 신현문구사를 비롯한 여러 개의 문구점, 그리고 100원짜리 떡볶이를 팔던 분식가게들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문구점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시절, 문구점은 우리들의 놀이터이자 보물창고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신현문구’,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시절을 추억하며 슬며시 웃음 한번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신현문구를 운영하고 있는 서충성이라고 합니다.

**Q. 40년간 한 자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니까요?**

**A.** 제가 그때는 젊을 때니까 여기 이 집에 세를 들어 살았어요. 그때는 여기가 학교가 없었고, 여기가 이제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한테 여기다가 가게를 하나 들여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했어요.

**Q. 혹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그런적은 없으셨을까요? 간판은 좀 바꾸신거 같은데요.**

**A.** 이제 제가 이 집에 세를 살다가, 이 집을 샀거든요. 원래 단층집이었는데 2층을 올리고, 가게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집이 워낙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간판은 얼마 전에 리모델링할 때 바꿨어요.

**Q. 그러면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셨었나봐요?**

**A.** 처음에는 학생 수가 한... 3,000명, 최고 많을 때가 3,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3학년까지 오전, 오후 반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 물건을 문방구에서 다 샀으니까 장사가 좀 잘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학교 근처에만 문방구가 일곱 개 정도 있었거든요? 체육복도 입었는데 체육복 갖다 파는 가게가 동네에 한 20여 군데가 됐어요. 그때는 체육복도 입고, 모자도 쓰고 그랬죠, 지금은 다 그게 없어졌죠.

**Q. 지금은 보니까 문구점이 여기 하나만 남은 거 같아요.**

**A.** 네, 학생이 지금 420명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쓰는 것 전부 학교에서 나눠주니까 여기 와서 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문방구가 다 없어진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만 남았는데, 저도 이제 뭐 나이도 한 칠십이 넘었고... 우리 집이고 세가 안 나가니깐 그냥 가게 열어 놓고 사람들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Q. 사장님, 옛날과 요즘에 우리 신현문구사의 효자아이템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지금은 뭐, 요즘 잘나가는 게 이거 슬라임인가? 이런 게 잘나가요. 예전에는 참고서! 문제집만 팔아도 정말 괜찮았어요. 학교에서 참고서도 전과 이런거 많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다 사야 되니까! 아침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구점에 들어왔다 하면 나가지를 못했어요. 막 아침에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이렇게 아침 등교 시간에 30~40분 시달리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멍~ 해갔고... 그 정도로 문방구가 장사가 다 잘 됐어요.

**Q. 신현문구를 40년간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A.** 글썄요.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했으니까 애들 중에 간혹 물건을 들고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웃음) 그 당시에는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고, 글썄 지금... 1회 졸업생이 지금 한 50살이 넘었을 겁니다. 뭐 특별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침에 애들이 많아서 붐비니까 한 번쯤은 그냥 눈 감아 준 적도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재미를 붙여서 또 하고, 안되겠다 싶어서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Q. 앞으로 신현문구는? (어떤 곳은 남았으면 하시나요?)**

**A.** 글썄요. 뭐, 저는 문구점을 운영하면서 즐거운 일들도 많았고 해서 제가 체력이 되는 한 가게 세 나가고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학교나 집을 오가면서 들어와서 구경하고, 얘기도 나누고, 필요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 추억의 공간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구술문 정리/사진 조경희(서구기록가 1기)



▲ 한자리에서 40년간 문구점을 운영 중이신 서충성 사장님과 문구점 안팎의 모습(①, ②)

사장님은 어떻게 문구점을 이 자리에서 시작했는지, 그리고 운영하며 생겼던 에피소드를 이야기 하고 있다.(③)\_ 인터뷰: 유현옥 기록가



## [특집기사] 인천 서구의 공원을 소개한다!

### 김옥선 기록가가 소개하는 청라생태공원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내에 위치한 청라생태공원은 82,00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꽃과 숲이 어우러진 자연 학습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공원과 함께 천연 잔디로 조성된 축구장과 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원에 주차를 하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잔디광장이다. 전체적으로 잔디밭이 잘 가꾸어져 있어 탁 트인 초록 잔디를 보는 눈이 즐겁다. 그리고 공원 곳곳에 이색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반원형으로 무지개를 표현한 알록달록 조형물이 단연 눈길을 끈다.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한번 그 앞에 서보라고 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주고 싶다. 벤치 뒤에는 나무로 제작된 격자무늬 조형물이 있는데 마치 옛날에 창호지 바른 문살을 보는 것 같이 정겨운 모습으로 잘 어우러져 정자와 함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놓았다.

잔디광장 옆에는 생태 연못과 함께 온실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온실은 노후 시설 교체공사 중으로 관람이 불가능하지만, 곧 공사가 마무리되면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는 좋은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 온실 안에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식물을 관람하고 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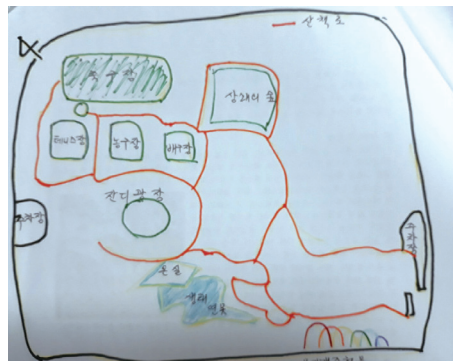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온실에서 나와 잔디와 체육시설을 지나면 '산림탄소 상쇄의 숲'이 나온다. 나에게서는 이름마저 생소한 단어인 '상쇄'는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이라는 뜻이다. 이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조성된 것이라 하니, '숲과 이산화탄소가 상쇄의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구 온난화를 상기시켜 주는 공간으로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감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계절 꽃밭과 정자도 마련되어 환경을 생각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생태 연못을 가로질러 설치된 데크를 걸으며 연못 속에 살고 있는 풀과 물고기들도 볼 수 있었다.

공원 내부에 잘 조성된 산책길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 보는 눈도 즐겁지만 눈부신 가을 햇살을 잠시 피하며, 마음의 여유까지 찾을 수 있다. 특히 잔디밭과 체육시설 주변의 향긋한 잣나무 숲길을 추천하고 싶다. 이용시간은 매일 09:00~18:00이며,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살짝 힘들지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사계절 운치 있는 청라생태공원에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청라생태공원 가는 길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 길 38  
글·사진/김옥선(서구기록가 1기)



▲ 청라생태공원 내에는 초록초록한 공간을 많이 볼 수 있다. 초록초록한 공간들 속에서 보이는 주황색 열매, 단감을 보니 반갑다.



▲ 공원을 다녀와서 한번 그려본 생태공원 지도.



▲ 청라생태공원의 포토존\_알록달록 무지개 조형물



▲ 경명공원의 한가로운 모습

날이 제법 선선하다. 그토록 무덥던 여름 어느 날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옷을 두툼하게 입고, 아시아드경기장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명공원을 찾았다. 6.25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611명을 기리는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가 있는 경명공원은 서구 빈정내 사거리를 기준으로 세 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1지구는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앞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소나무 동산, 벚나무 동산, 자작나무 동산이 있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운동 시설,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가을철이라 연못 주변이 스산하다. 하지만 여름이면 이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연못 주변의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는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연못 가까운 곳에 너른 별판이 이어지고 철새들이 이곳을 찾기도 한다.

1지구에서 산책로를 따라 연결된 2지구는 이팝나무 산책로와 경관 폭포, 화장실 등이 있고 콜롬비아공원에 있던 한국전 참전비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설치했다.

콜롬비아군은 6.25 전쟁 때 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참전했던 국가다. 1950년 7월 UN에서 53개 회원국에 한국으로 파병을 요청했을 때 콜롬비아는 한국과 그 어떤 외교 관계가 없었지만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결정하였다. 콜

롬비아군은 '승리와 영광'이라는 뜻을 담은 '바따온' 용사로 불리며, 1951년 5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53년 정전협정이 있기 직전까지 4개 대대 4058명의 용사를 파병해 한국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콜롬비아는 안데스산맥에 익숙한 생활과 특유의 열정과 용맹성 덕분에 고지대 전투에서 활약했다고 한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열대성 기후의 나라로 겨울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겪은 영하 40도 추위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용맹하기로 이름을 날렸던 콜롬비아군의 첫 전투는 지금의 철원군 평강시 동쪽에서 중공군과 치른 금성진격전으로 중공군이 점령했던 세 개의 고지를 탈환하였고, 콜롬비아군 8명 사망과 중공군 52명 사망이라는 승리를 남겼다.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3지구가 나온다. 3지구는 단풍나무 산책로와 작약 동산 등이 조성되어 있어 지구별로 계절에 따른 수목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주변에 자연적인 연못이 있고, 또 넓은 들판이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경관과 어우러진 경명공원은 호수와 어린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여름 피막별을 피할 수 있는 정자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이 좋아서 서구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 경명공원 찾아오는 길 : 인천광역시 서구 송학로333번길 34  
글·사진/김지영(서구기록가 1기)



▲ 경명공원을 알리는 표지판



▲ 경명공원 2지구에 있는 콜롬비아공원 참전비는 원래 가정동 콜롬비아공원에 있었지만 2018년 이전하였다.



## 유현옥 기록가가 소개하는 인천 서구의 작은 공원 샘내공원 & 능내공원

요즘은 어디를 가도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 큰 공원은 큰 공원대로, 작은 공원은 또 작은 공원대로 운치가 있고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 동네에도 자그마한 공원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 내가 주로 다니는 공원 두 곳을 소개할까 한다.



▲ 샘내공원 입구의 표지판



▲ 공원내에 마련된 운동 기구들



▲ 알록달록 구슬이 있는 미끄럼틀

첫 번째로 소개할 공원은 샘내공원이다. 서구청역 3번 출구로 나와서 500여 미터만 걸어가면 숲 우거진 공원이 나온다. 아담한 도심공원이지만, 공원 의자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마치 숲인 듯 피톤치드 향이 솔솔 풍겨 나온다. 이 공원도 여느 공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놀이터, 벤치, 정자, 운동기구 등 공원에 있어야 할 필수 요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 그리고, 숲에 와 있는 듯한 아름다우리무 또한 기본 요소이다. 그래서 새들이 날지 않고 그렇게 뛰노는지도 모르겠다. 새들은 공원 바닥을 총총걸음으로 다니며,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 빵을 먹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다 서로 다른 종의 새를 만나면 다시 총총

걸음으로 비껴간다. 나는 그런 새들의 모습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그러던 새들이 내가 사진을 찍고자 살금살금 다가가면 어찌 알았는지 일제히 날개를 펴리며 흩어진다. 사람들 사이에선 아담하고 외소한 편인 내가, 새들 사이에선 거인이 된 것 같아 으쓱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느낌도 든다. 바쁜 일상을 살다가 오늘은 이렇게 서구청역에 있는 샘내공원에서 잠시의 쉼을 가져본다. 길을 걷다 쉬고 싶어지면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 들고 공원에 앉아,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샘내공원 찾아오는 길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12



▲ 오렌지색 능내공원 표지판



▲ 시원하게 펼쳐진 축구장



▲ 우리 동네 걷기 운동 최고의 장소, 능내공원



다음으로 소개할 공원은 능내근린공원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검단오류 방향으로 타고 가다가 거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마전역이 있다. 그 역에서 내려 조금만 걷다 보면 공원이 나온다. 요즘은 도시 곳곳에 공원이나 산책로 등이 잘 꾸며져 있지만, 마전역에 있는 능내근린공원은 조금 특별하다. 보통의 공원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축구장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축구장의 인조잔디는 두툼하여 축구시합이 없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아도 다칠까 하는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진다. 축구장 주위로 는 지압길, 조약돌 담장도 있고, 산책길 중간 중간에 운동기구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한 능내근린공원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다. 계단을 올라가는 길과 경사면을 오르는 길, 그 둘 중 편한 길을 택하면 된다. 공원에 도착하여 안내판을 보면,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안내판이 있다. 예쁜 주위를 감상하며 이대로 걷다 보면 어느새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축구하는 모습과 응원하는 모습에 휩쓸려 걷다 보면 어느새 또 한 바퀴를 돌아 있고, 새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또다시 한 바퀴를 돌아 있다. 그렇게 이 공원에서의 산책과 운동은 힘듦이 아닌, 힐링의 즐거운 시간이 되어 간다

🏠 능내공원 찾아오는 길 : 인천 서구 검단로 540번길 41  
글·사진/ 유현옥(서구기록가 1기)

## 조경희 기록가가 소개하는 아라센트럴파크

여러분~ 서구에 새로 생긴 아라동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검단 신도시 1단계 지역을 ‘아라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동네답게 아라동에는 새로운 볼거리, 시설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동네의 명소 추천을 한번 해보라고 하신다면 저는 단연코, 1등으로 아라센트럴파크 공원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지역에 오래 살았던 저는 이런 공원이 꼭~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동네에도 산책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공원이 생겨 『日一記錄』 2호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의 대표 공원인 아라센트럴파크는 인천 서구 아라동에 위치하며 장미산의 등산로를 활용하면서 곳곳에 운동 시설도 마련해 놓아서인지 저는 아침 운동으로 이곳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로는 야트막하니 어린이나 어르신분들도 올라가기 힘들지 않아 보였습니다.(단, 등산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 유모차는 올

라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곳곳에는 철봉과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 새로 생긴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해 보려는 어린이들로 늘 시끌시끌합니다. 한편에는 벤치 등 휴식공간이 있어서, 별이 좋은 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고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느낌이라니!!!” 너무 편해서 그대로 벤치 위에서 잠들고 싶은 느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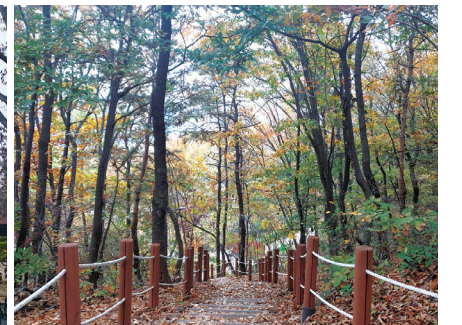
아라센트럴파크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공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 도토리 쉼터, 가든, 클라이밍과 각종 운동기구가 모여있는 트레이닝 필드, 다목적 광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단풍 막바지로, 늦가을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힐링을 위해 아라센트럴파크에서 산책을 하고, 주변 맛집에서 점심 한 끼 하시면 어떠세요? 아직! 조금은 생소한 동네, 아라동의 센트럴파크! 내년 이맘때쯤에는 인천 서구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서구의 대표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도심 속 쉼터 아라센트럴파크를 소개합니다~



▲ 공원 내에 있는 검연폭포



▲ 아라센트럴파크 산책길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

▲ 호기심 가득!  
우주선 모양의 시그니처 가든

▲ 아라센트럴파크에는 휴식공간과 놀이터,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 아라센트럴파크 찾아오는 길 : 인천 서구 원당대로 976  
글·사진/ 조경희(서구기록가 1기)





서구기록가 블로그GO

서구기록가 블로그에서  
인천 서구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서구민의 일상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공동체 서구기록가 1기

